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19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41)	봉헌 (512)	성체 (182)	파견 (137)
---------	----------	----------	----------	----------

### 미사 전례 예절

- 성당 안에서는 다른 교우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며 기도 또는 묵상(默想)해야 합니다.  
예) 책장을 소리나게 넘기거나 옆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주위를 산만하게 돌아보는 행위 등을 삼가 해야 합니다.
- 세례 성사를 받은 신자가 미사 참례 시 영성체 (領聖體 : 성체를 영하는 것, 즉 받아 모시는 것)를 하기 위해서는 영성체 1시간 전(미사 시작 40분 전)에는 물(생수)이나 약 외에는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면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성체 모독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예를 지키는 것을 공복재(空腹齋)라 합니다.
- 성당 안에서 이동시에 제대와 성체를 모셔둔 감실을 지나칠 때 제대는 가까운 위치이든 먼 위치이든 제대 중앙에 서서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감실은 가까운 위치에 왔을 때 감실 앞에 서서 감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29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5/6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5/13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5/20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미사 책 대금: \$10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92	\$90	\$7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2	손 아놀드/ 손 쟈마
5/5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6/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5/12	김 마론/ 김 헬레나	6/16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5/19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23	이 요한/ 이 마틸다
5/26	황 가롤로/ 전 제노베파	6/30	유 요한/ 유 마리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6 월 7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6 월 10 일 오후 6 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로마서로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장소는 친교실 입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다음모임은 5 월 20 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 새로 오신 김희수 바오로 형제님을 환영 합니다.

**성모의 밤 행사** 5 월 21 일(월) 6:45pm

이번 성모의 밤은 지난번과 같이 성당 옆 잔디밭에서 하겠습니다.

행사 후 친교실 에서 식사가 준비됩니다.

**성령기도회 피정일정** 5 월 25,26,27 일

우리 신부님이 지도 신부로 계시는 성령기도회 임원들의 피정이 우리 성당에서 25,26,27 일 삼일 간 있을 예정입니다. 주님 은총 속에 좋은 피정의 시간 갖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네**

-전승환 레오 | 작가-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저 책이 좋아 시작했던 <책 읽어주는 남자>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고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은 30만 부가 넘게 팔리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예전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작가라며 대단하게 봐주셔서 여전히 얼떨떨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작가라는 길 또한 주님께서 인도한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당 활동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렇게 많은 책을 접하고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당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글을 쓰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또 책에서 좋은 글귀들을 뽑아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읽으며 신앙 안에서 늘 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기획, 프로그램 개발, 영상 시나리오 작성 등 늘 글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주님의 품 안에 머물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리교사 시절 수녀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이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 봅니다. 수녀님께서 소임을 다 하시고 떠나시는 날 제게 “승환아 지켜 봐 왔는데 너는 작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켜보니 수녀님께서 제 작은 능력을 알아봐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신앙인으로서 참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글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길 기대합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길

희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공감이가 되는 글들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글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대 삶에 바람 불어 이리저리 휘청거릴지라도  
 그분이 깊게 뿌리내려 있어 당신 꺾이지 않으리  
 그대 삶에 파도쳐 이리저리 휩쓸릴지라도  
 그분이 등불 비춰주고 계시니 당신 길 잃지 않으리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빛이 되어 주시고 눈물 닦아 어깨 내어 주시니  
 우리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으리  
 우리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니  
 버틸 수 있네, 행복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성령의 빛이  
 감동 때 상대방의 그 어떤 독설도 간교함도  
 결코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